

# 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국 유치·홍보 '잔걸음'

# NEWS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 32개국 주한외국공관장 팸투어...콘텐츠 홍보 답인드오프쇼어-섬박람회조직위 공식후원 협약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아시아, 미주 등 32개국 주한외국공관장,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국 유치 팸투어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환영 만찬은 21일까지 진행되는 '주한외국공관장 여수 팸투어' 주요 일정 중 하나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해외 참가국 모집과 핵심 콘텐츠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섬의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고 여수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 갖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행사에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중국,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태

평양 지역 13개국 스그리스, 노르웨이,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스가나, 가봉,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레바논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6개국 스도미니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과테말라 등 미주 지역 9개국의 주한외국공관장이 참석해 국제적 관심을 보였다.

양투안 아잠 주한레바논 대사는 주한외국공관장을 대표해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섬 국가가 함께 번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 기업 답인드오프쇼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간 공식 후원 협약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국 유치를 위해 열린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팸투어' 행사에서 주요 내빈 및 참석자들과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한스페터 오브리디 답인드오프쇼어 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박람회 공식 후원을 약속했다.

이어 32개국 외교사절단과 주요 내빈이

함께 섬박람회 상징 깃발과 피켓을 활용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비전 아래 펼쳐질 이번 박람회는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섬이 지닌 중요성에 대해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참여로 국제행사로 개최되도록 대사님들의 홍보와 협력이 더해진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내외 30개국, 9만명 이상의 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 기아 경기 보고 광주 여행... '야구광 트립' 출시

### KIA 흥경기 연계 관광상품...무등산·동명동 등 투어 강기정 시장, 프로야구 광주 흥개막전 홍보활동 펼쳐

'스포츠 도시 광주'가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를 연계한 야구 특화 관광상품 '야구광 트립'을 출시한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야구 특화 관광상품인 '야구광 트립'을 출시. 오는 4월부터 여행사를 통해 연중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20일 밝혔다.

'야구광 트립'은 빛고을 광주의 '빛광(光)'과 야구에 열광하는 '미칠광(狂)'의 중의적 표현으로, '야구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란 의미를 담았다.

이 상품은 광주에 와서 야구만 보고 돌아가기 아쉬운 이들을 위해 KIA 타이거즈 홈경기장이 있는 날, 경기관람 전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광주의 대표 관광지 동명동·양림동 권역, 전일빌딩 245, 무등산 일일 등을 여행할 수 있다

록 구성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높은 인기로 관광권을 구하기 힘들어진 이들이 보다 손쉽게 표를 구할 수 있다.

또 광주관광공사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가격도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기관람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광주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구광 트립' 관광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관광공사(062-611-3634)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 방문의 해' 붐업 조성을 위해 관광상품 '야구광 트립' 외에 '레일텔(Rail+Hotel)', '소년의 길'도 내놨다.

'레일텔'은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열차승차권을 최대 30%, 숙박요금 3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 또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년의 길'은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품 속 배경인 오월광주를 함께 거니는 광주만의 역사기행상품이다.

광주시는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기점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모객과 프로모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통해 스포츠, 오월광주, 미식과 같은 광주만이 지닌 구슬들을 잘 꿰겠다"며 "응비하하는 보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풍성한 관광상품과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2일 '2025 프로야구(KBO) 리그 KIA 타이거즈 홈 개막전'에서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프로야구 개막...시, 시민불편 최소화 총력

광주시는 2025년 프로야구(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 홈경기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광주시는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경기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배차시간을

충충히 하는 등 관람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와 협력해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 불법 주차 계도를 강화, 경기장 주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 농수산물 수출 호조...올 들어 1억2000만 달러

### 미국·일본·중국 등 수요 늘어 조미김 전년 대비 31.2% 증가

전남도는 1~2월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4% 증가한 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김과 음료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월까지 전남의 김 수출은 5945만 8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하며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51.2%를 차지했다.

특히 조미김(3526만6000달러)이 지난해보다 31.2% 증가해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음료 수출도 급증했다. 일본(185.0%), 중국(95.9%), 필리핀 등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보다 80.1% 증가한 647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과일주스 수출이 각각 185.0%, 117.3%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주도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49.6%), 러시아(20.9%), 일본(10.3%), 중국(5.3%) 등 주요 시장에서 전남 농수산물의 수출이



전남 1~2월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4% 증가한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진은 미국 네브라스카 링컨대학에서 전남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증가했다.

미국에는 김 61.1%, 음료 13.9%, 배 7.5% 증가로 총 2463만달러를 수출했다. 일본에선 김·전복·음료가 주요 성장 품목이다. 중국에선 김과 분유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러시아에선 김 92.8%, 장류 19.8%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됐다.

농수산 가공품과 축·임산물도 증가했다. 전남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지난해보다 63.4% 증가했으며, 축·임산물(21.6%), 수산물(22.7%)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과 음료 등 전남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앞으로도 수출 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로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위(Weee) 등 온라인 유통 채널과 8개의 상설판매장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전남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네브라스카주 링컨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남도의 맛을 알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